

교통사고 다신 없길… 시골마을 한 맷한 ‘씻김굿’

장흥 연동마을 10년동안 사망 9명 중상 10명

직선코스 끝나는 지점 급커브… 대책마련 시급



지난 26일 장흥군 장흥읍 시안리 연동마을이 마을 앞 도로에서 사망한 흔백을 달래는 씻김굿을 지켜보면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광주학교 15곳, 운영위원 업체 ‘밀어주기’

감사원 감사, 배우자 명의 사업체와 136건 계약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영 위원이나 운영위원회의 배우자 명의로 된 사업체와 100건이 넘는 계약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체와의 계약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5개 초중고에서 운영위원 등 19명과 계약한 건수는 136건에 달했다.

서부교육청 산하 학교는 운영위원회와 그 배우자 등 4명에게 7건을, 또 다른 학교는 2명에게 60건을 몰아쳤다. 특히 이 학교는 한 운영위원회와 무려 42건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지난해는 51건에 3700여 만원, 2010년 7100만원(38건), 2008~2009년은 57건 7300여만원 등 4년간 1억8000여만원이다. 계약은 시설이나 공사, 물품 납품 등으로 대부분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고 조만간 해당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어갈 계획이다.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는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지원을 받을 경우 재산상 권리·의익을 취할 수 없게 돼 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경북대 총장 직선제 폐지

경북대가 총장 직선제 존치로 총의를 모았던 교수회의 의견과 달리 직선제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

는 국립대는 38개 대학중 전남대·목포대·부산대 등 3곳이다.

경북대는 지난 20일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학칙을 공포했다.

개정 학칙에는 ‘총장후보자는 총

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대한방과후교육협회 발기인 대회 및 사업설명회

안녕하십니까!

사)대한방과후교육협회에서 지역 교육을 이끄시는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방과후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 교육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한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할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시어 고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전국 지부망을 통해 조직적인 활동으로 내실 있고 체계적인 방과후 교육을 선도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이율리 본 협회 회원, 분과장, 지부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현직 교육계 저명인사 회장 및 고문, 이사, 자문위원참여)

- 일 시 : 2012년 8월 16일(목) 14:00~16:00 (광주·전남 동시 실시)
- 장 소 : 광주교육대학교 대강당
- 문 의 : (사)대한방과후교육협회
- ☎ 062) 268-0978, 011-434-4837

비 전	회원 및 지부 모집대상
1.방과후학교 교사인증 자격증발급	1.교육계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
2.방과후교사 양성과정	2.교육에 관심이 깊으신 분
3.일자리 창출(고학력경력단절여성)	3.학원운영 경험이나, 현재 학원운영중 이신 원장님
4.사회적 기업 지원	4.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하실분
5.평생 교육원운영지원	
6.법인설립지원	

회원가입 후 진로

초·중·고 방과후 교사, 침입지원원,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 각 대학원생, 교육원, 1:1홈스쿨, 지역아동센터강사, 각 대학 평생교육원 방과후강사 등으로 취업

사단법인 대한방과후교육협회



점에 마을이 위치해 있어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도 참조

지난 16일에는 마을 앞에 지나던 차량이 도로 옆에서 밀입을 하고 있던 이 마을 주민 송모(76)씨를 들이 받아 송씨가 숨졌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김모(34)씨가 물든 차량이 마을 앞에서 전복돼 김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응급환자를 태우고 마을 앞에 지나던 119구급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주모(60)씨가 숨지고, 구급대원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해마다 마을 앞 교통사고가 잇따라 차를 분위기는 점점 흉흉해졌다. 언제, 어디서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누구나 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불행이 잇따르고 있는 것.

이 마을은 지방도 835호선(왕복 2차선)을 따라 형성돼 항상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장흥읍에서 강진군 병영면 방면으로 2km 직선코스가 끝나고 급한 곡선코스가 시작되는 지



날 굿판을 열었다.

최근 장흥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이 마을 앞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도로에 대한 선형 개선, 과속방지턱 4개소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경광등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박 이장은 “오죽하면 400여만원이나 들여 이런 곳을 하겠나?”며 “앞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당국에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오늘 날씨

해물 05시 40분 해진 19시 37분 달밤 17시 04분 달점 02시 19분

오늘도 폭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이 계속 되겠다.

광 주	맑음	25/35°C
목 포	맑음	25/32°C
여 수	맑음	26/32°C
나 주	맑음	25/35°C
완 도	맑음	24/33°C
구 레	맑음	25/35°C
강 진	맑음	24/33°C
해 남	맑음	24/33°C
장 흥	맑음	24/33°C
순 천	맑음	24/33°C
영 광	맑음	24/33°C
진 도	맑음	24/32°C
전 주	맑음	25/34°C
군 산	맑음	25/32°C
남 원	맑음	23/34°C
흑 산 도	맑음	24/31°C

식중독자수 지역별자수 피부질환자수

비다	풍향	파고	식중독자수
서해 남부	일비다	남~남서	0.5~1.0m
남해 서부	일비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일비다	남동~남	0.5~1.0m
경고	매우높음	높음	

기상악화시 ‘점멸신호→정상신호’로

광주경찰, 전국 최초 ‘교차로 신호기 자동변경’

광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신호기 자동변경 프로그램을 지방경찰청 최초로 운영한다.

‘교통신호기 자동변경 프로그램은 기상악화 등 돌발상황 시 기존 점멸신호로 운영되던 교차로의 신호기를 정상신호로 한 번에 전환해주는 시스템이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지역 내 878개 교차로 중 323곳의 신호기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야시간대 및 기상악화 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통과하다 7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 점멸신호 교차로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수동 조작에 의해 최대 5시간이 소요됐던 신호변경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정상신호로 자동변환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올 상반기 광주지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건수는 5.5%, 사망자 수는 15.9%, 부상자 수는 4.3% 각각 증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대 총장선거 후보 5명 자격심사 통과

서재홍·강동완·김하림 ‘3강 압축’

8월23일 투표

들의 신망도 두텁다. 특히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교수와 이번 선거에서 총장후보로 거론됐던 교수 등 거울급 선거 참모들이 포진한 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강동완 후보는 대학의 비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제시가 돋보인다. 강 후보 지지층이 전후종합 총장의 지지세력과 겹쳤기 때문에 전 총장이 없는 이번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30~40대 교수が 30%를 차지하고 있어, 능력·인물면에서 우세한 자신에게 표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하림 후보는 전후종합 총장의 지지세력과 자신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찾아 표밭을 깔고 있다.

전 총장의 대리인 격인 김 후보는 전 총장 지지세력의 결집력이 살아 있고, 여기에 자신의 역량을 더하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장 개척적인 후보로 꼽히지만

선거에 늦게 뛰어들어 조직이 약하다는 평이다.

조병숙(64·화학공학과) 후보는 부총장과 기획실장 2차례 등 대학행정 경험이 후보중 가장 풍부하다. 또한 지난 1년간 학교를 과단으로 몰고 간 원인이 전후종합 총장과 전 총장 재선 반대를 위해 연합한 세력에게 있는 만큼, 양측과 관련이 없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상위권 당선을 낙관하고 있다.

임동윤(59·야리학과) 후보는 연구 능력이 탁월해 구성원들에게 학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대학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전후종합 총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대학에서 만 100표 가까운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후보자 기호 추첨은 31일이며, 학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2차례 8월 14일·21일)를 거친 뒤, 8월 23일 투표가 실시된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남구장학회, 하반기 장학생 55명 선발

광주시(제)남구장학회는 다음달 6일부터 9월5일 까지 30일간 ‘2012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동주민센터 및 남구장학회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장학금은 장학재단이 사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10일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생은 남구 지역 학생 90%, 타자치구 거주 학생 10%의 비율로 선발하며,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히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동주민센터 및 남구장학회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장학금은 장학재단이 사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10일 지급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150여가지의 측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h2